

작품 내용

제 목	문장의 원가
내 용	검은 바다 위로 흰 부표 하나가 눈에 걸리자 배의 엔진음이 잦아들었다. 우비를 두드리는 빗소리와 양망기 툴러가 로프를 끌어당기는 쇠소리만 선명해졌다. 녹슨 통발 하나가 바닷물을 털며 뱃진으로 붙었다. 갑판장이 턱으로 내 앞을 가리킨 뒤 한 발 물러났다. 사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 손으로 몰렸다. 팔을 뻗었다. 한 박자 늦었다. 손은 통발 대신 허공을 움켜쥐었다. “손을 먼저 넣어야제.” 갑판장이 혀를 찼다. 두 번째 통발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어금니부터 맞물렸다. 로프 사이로 손을 넣어 통발을 낚아채고 스나프를 감았다. 팽팽해진 줄이 손아귀에서 튀었다. 스나프는 빠져나갔고 통발은 도르래 쪽으로 처박혔다. “됐다. 나와.” 몇 번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나는 후미 한쪽으로 밀려났다. 갑판장의 손은 벌써 다음 스나프를 풀고 있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어디를 잡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 망설이지 않았다. 바닷물이 갑판 위로 떨어질 때마다 비린 꽃게 냄새가 올라왔다. 갑판장의 손이 빠른 것은 타고난 재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수없이 허공을 움켜쥐고, 손아귀에서 줄을 놓친 시간이 그 손 안에 먼저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내 손은 계속 다른 일을 배웠다. 정육점에서는 칼을 쥐었다. 처음 몇 달은 칼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고기를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하는지, 칼끝에 힘을 얼마나 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칼질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따라왔다. 마트 개업 행사 날에는 쇼케이스 앞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삼겹살 백 그램에 구백구십 원!” 목이 터져라 가격을 외쳤다. 칼을 쥔 손은 고기를 썰고, 입은 같은 숫자를 되풀이했다. 의자에 앉은 사장의 눈이 내 손 위에 있었다. 칼질이 느려지면 그의 눈초리도 좁아졌다. 나는 그 눈을 등으로 느끼며 손을 빠르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식자재 마트의 배송팀장이 되었을 때는 손보다 말을 먼저 내밀어야 했다. 식당에는 좋은 물건을 되도록 싸게 공급해야 했고, 마트는 그 안에서 이익을 남겨야 했다. 두 의무는 늘 한 장의 거래명세서 안에서 부딪쳤다. 물건이 상했다는 전화가 오면 목소리를 낮춰 사과했다. 가격이 비싸다는 항의에는 다음 주문에서 맞춰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납품가와 원가 사이에는 고객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마진을 남겼다. 한 달에 한 번은 외상값을 받으러 식당들을 돌았다. 장사가 안됐다는 말, 사

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말,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왔다. 어느 저녁에는 거래명세서만 접어 주머니에 넣고 빈손으로 식당을 나왔다. 종이에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적혀 있었지만, 그 거래에서 조금씩 깎여나간 신뢰의 값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가격과 가치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버스 운전석에 앉고서야 내 손은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뒷문으로 내리던 날이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지나고, 뒷문 발판에서 연석으로 발을 옮기는 동안 나는 침만 삼켰다. 뒤에서는 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두 발이 연석 위에 완전히 올라선 순간 뒷문을 닫으려는데, 앞문으로 교복 입은 학생 하나가 뛰어 올랐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니야. 너를 기다린 게 아니야.’

할아버지를 기다린 것은 맞지만, 그 학생을 위해 멈춰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 보여도 바로 지나치지 않았다. 거울을 한번 더 보고,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몇 초쯤 더 살폈다. 그 학생의 말이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을 먼저 말해버린 것 같아서였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몰랐고, 그들도 내 이름을 몰랐다. 그러나 표정과 몸짓은 조금씩 내 안에 쌓였다.

회차지에서 다음 출발을 기다릴 때면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다. 소설에 쓸 만한 일화, 언젠가 해보고 싶은 구상, 불쑥 떠오른 문장을 적었다. 회차지의 운전석은 조금씩 나의 집필실이 되어갔다.

그 메모들이 첫 소설의 문장으로 이어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다. 첫 문장을 적을 때 ‘작가’라는 말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쓰는 감각은 낫설지 않았다.

어금니가 맞물리는 순간.

손을 먼저 놓아야 한다는 말.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일.

오래전부터 손이 알고 있던 것들이 문장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

삶은 그대로 글이 되지 않았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멈출지 골라야 했다.

어선의 밤을 모두 적을 수는 없었다. 정육점에 밴 냄새도, 외상값을 받으러 돌던 저녁도, 버스 안에서 스쳐간 수백 개의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중 몇 장면을 골랐다. 순서를 바꾸고, 말을 털어내고, 감정의 온도를 조절해 끝내 내 문장으로 만들었다.

삶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 삶에서 무엇을 골라 어떤 말로 남겼는지는 내 것이었다.

누군가는 완성된 문장을 복사할 수 있다. 붙여 넣고, 제목을 바꾸고, 자기 이름을 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을 가능하게 한 시간까지 복사할 수는 없다.

허공을 움켜쥐었던 손.

사장의 눈 아래 삼겹살을 찢던 손.

받지 못한 외상값 대신 거래명세서를 접었던 손.

할아버지가 연석에 올라설 때까지 헨들을 쥐고 기다렸던 손.

그 손들이 이미 문장의 원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막차를 마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운 어느 밤이었다. 시동을 끄자 하루 종일 귀에 붙어 있던 고주파 모터음이 사라졌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직 제목 없는 첫 소설이 떠 있었다.

운전석 단말기 위에서 매일 보던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BMS.

버스은행관리시스템을 뜻하던 글자였다. 나는 제목 칸에 그 세 글자를 옮겨 적었다. 운전석에 붙어 있던 이름이 처음으로 문장 위에 올라갔다.

오래전 갑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손을 먼저 넣어야제.”

어선에서는 한 박자 늦었던 손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다.

누구나 바다와 고기와 버스에 관해 쓸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역시 내 혼자만의 소유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골라 어떤 순서와 문장으로 남겼는지는 내 이름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는 저작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 문장의 원가는 오래전에 몸으로 치렀다. 이제 그 문장에 이름을 붙이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